



동신대 영어사관학교 '심화반' 개설



과학·예술 융합 창의적 인재양성 나선다

조선대, 초등생 대상 학년별 'STEAM 집중교실' 운영

인체 탐험·튼튼 구조물·별 따위 가자 등 프로그램 구성

다양한 분야의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는 실험 등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선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광주시 생활 과학교실'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STEAM 집중교실'을 개설한다.

STEAM은 미국의 'STEM' 교육에 Art(예술)를 추가해 'STEAM'으로 발전된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

그리고 Mathematics(수학)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서 통합교육의 한 가지 방법이다.

즉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기술·공학 및 예술과 수학이 융합한 형태의 교육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융합시대에 적합한 창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이다.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 STEAM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과학교육 정책에 따라 한

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STEAM 집중교실을 개설하게 됐다.

광주시 생활과학교실이 복권위원회 후원을 받아 여름방학에 개설하는 STEAM 집중교실은 일반학생을 위해 총 5개의 교실을 운영한다.

먼저 '인체탐험'(8월 20일~31일, 5학년 대상) 교실은 우리 인체의 구석 구석을 살펴보고, 건강까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학교에 튼튼 구조물을 세워라'(8월 6일~10일 3학년, 8월 20일~24일 4학년)는 실생활에서 접하

는 구조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과학에 수학·공학·기술 및 예술분야

를 융합해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별 따위 가자'(9월 1일~2일 5학년, 9월 15일~16일 6학년)는 천문 과학 분야에 수학·기술 분야를 융합해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별과 지구, 망원경 만들기, 천문대 탐방, 별자리 신화 이야기하기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 생활과학교실은 현재 15개 주민자치센터, 3개의 복지시설,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1차례 체험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배려계층 학생들을 위한

STEAM 집중교실도 3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생활과학교실 김선아 책임 교수(조선대 수학과)는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서로 별개로 보아왔던 과학, 기술 분야와 예술 분야를 융합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학년별 STEAM 집중교실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참가자 신청은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생활과학교실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livingscience>) 또는 전화(062-230-6846)로 문의하면 된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으며, 실험에 쓰이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눔·배움 실천 '함께 사는 세상'

동신대 25~27일 'Dream Together' 봉사 캠프



장애인과 대학생·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행사가 동신대학교에서 열린다.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학장 장성주·사진·방사선학과 교수)은 25일~27일까지 2박3일간 교내에서 'Dream Together' 봉사 캠프를 개최한다.

동신종합사회복지관과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7세~16세 사이의 장애인 50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50명,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인 1명당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각 1명씩 총 3명이 한 팀이 되어 생활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캠프에서 동신대 보건복지대학은 통합임상치료센터 등 동신대학 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치료봉사와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극기 훈련·캠프파이어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신체 활동과 일상평가, 치료활동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대학 모든 학과의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교수들의 지도 아래 전공을 살린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과봉사의 경우 물리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안경광학과·언어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 등 5개 학과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함께 수화배우기(사회복지학과),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눈건강 검안(안경광학과), 언어평가(언어치료학과), 손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평가(작업치료학과), 뉴스포츠 스토리(생활체육학과), 체력측정(운동처방학과), 골고루 먹어야(식품영양학과), 페이스 페인팅(뷰티미용학과) 등 전공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성주 동신대 보건복지대학 학장은 "앞으로 일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질 학생들에게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봉사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봉사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 동신대 보건복지대학은 통합임상치료센터 등 동신대학 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치료봉사와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극기 훈련·캠프파이어 등 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폭력 '이제 그만'

광주대자중학교(교장 김재근) 연극반 학생들이 지난 20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 '이제 그만'을 무대에 올린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본을 쓰고 연출한 이 연극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이 공감, 서로 협력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얼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한복 기증하세요"

베트남·中 세종학당 수료식때 사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수강생들을 위해 한복 수집에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개설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호찌민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33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히 절강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

호찌민세종학당과 절강과학기

고 있고, 2010년 11월 1일 문을 연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도 6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매년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이 열리며 수강생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

수료식 행사 때마다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한복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등 현지에서 한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675·667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한복 기증하세요"

베트남·中 세종학당 수료식때 사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수강생들을 위해 한복 수집에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개설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호찌민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33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히 절강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

호찌민세종학당과 절강과학기

고 있고, 2010년 11월 1일 문을 연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도 6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매년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이 열리며 수강생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

수료식 행사 때마다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한복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등 현지에서 한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675·667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한복 기증하세요"

베트남·中 세종학당 수료식때 사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수강생들을 위해 한복 수집에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개설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호찌민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33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히 절강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

호찌민세종학당과 절강과학기

고 있고, 2010년 11월 1일 문을 연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도 6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매년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이 열리며 수강생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

수료식 행사 때마다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한복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등 현지에서 한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675·667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한복 기증하세요"

베트남·中 세종학당 수료식때 사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수강생들을 위해 한복 수집에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개설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호찌민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33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히 절강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

호찌민세종학당과 절강과학기

고 있고, 2010년 11월 1일 문을 연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도 6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매년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이 열리며 수강생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

수료식 행사 때마다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한복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등 현지에서 한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언어교육원은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한복을 기증받아 수료식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675·667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한복 기증하세요"

베트남·中 세종학당 수료식때 사용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수강생들을 위해 한복 수집에 나섰다.

조선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에 개설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호찌민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33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히 절강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했다.

호찌민세종학당과 절강과학기

고 있고, 2010년 11월 1일 문을 연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도 6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